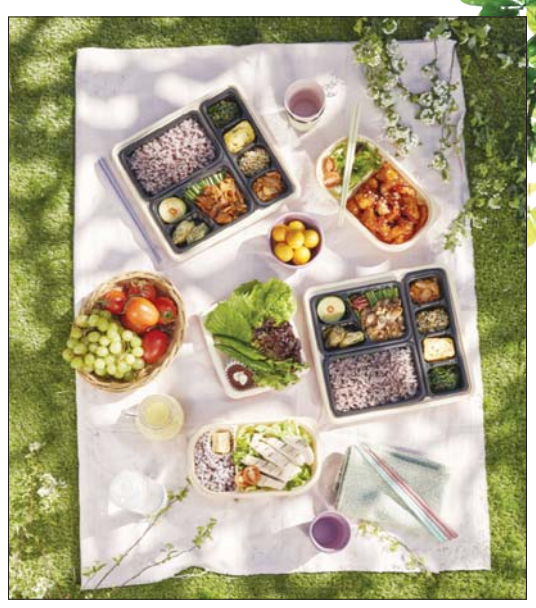
커피도 도시락도 '친환경'에 담는다…'에코 패키지' 열풍

재활용쓰레기 대란… 친환경 움직임 활발
종이소재 '카토캔'·자연분해 플라스틱 등
일회용품 최소화로 고객 '가치소비' 발맞춰



본도시락 친환경 용기 /본아이에프

최근 재활용 쓰레기 대란이 전 세계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국내에서도 플라스틱 등 불필요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려는 움직임이 늘고 있다. 소비자 역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에코백이나 텀블러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며 '친환경' 키워드를 바탕으로 한 '가치 소비'에 힘쓰고 있다.

특히 이달부터 커피전문점 내 일회용 컵 사용이 금지되는 등 식품업계 내 친환경 움직임이 활발하다. 이 가운데 업계 곳곳에서 최소한의 플라스틱이나 친환경 소재를 사용한 '에코 패키지(ECO Package)'를 마련해 환경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본아이에프의 본도시락은 플라스틱 대란 이전부터 환경과 소비자를 생각해 친환경 용기를 사용하고 있다. 친환경 용기는 합성수지 비율을 기존보다 30% 이상 줄여 일반 플라스틱에 비해 훨씬 빠르게 자연 분해되는 에코 패키지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부터 제품력과 안정성을 인증받았다. 본도시락 친환경 용기는 전국 본도시락 매장 내 모든 메뉴 주문 시 만날 수 있다.

원두커피 전문 기업 쟈뎅은 국내 최초로 친환경 종이 소재의 포장 용기인 '카토캔(Catocan)'을 적용한 '카페리얼 티라떼'를 선보였다. 카토캔은 기존 알루미늄 캔보다 가벼워 뛰어난 휴대성이 높을 뿐 아니라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어 플라스틱 폐기물 감축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친환경 용기를 적용한 까페리얼 티라떼는 '까페리얼 스트로베리 티라떼', '까페리얼 오렌지 티라떼' 등 2종으로 만날 수 있다.

오리온은 자원 낭비와 환경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포장재 규격을 축소하고 잉크 사용량을 줄이는 '착한 포장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제과업계 과대포장 문제가 지적된 2014년부터 20여 개 제품의 포장재 규격을 축소하고 내용물을 늘리며 자발적으로 환경 및 소비자 권익 보호에 나섰다. 이 외에도 브랜드의 포장 디자인을 단순화해 잉크 사용량을 줄이고 협력사와 함께 환경친화적 포장재를 개발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실천 중이다.

원앤원의 삼겹살 포장·배달 전문점 '핑크돼지'는 운영 초기부터 친환경 용기를 사용하고 있다. 핑크돼지의 '친환경 이중 용기'는 친환경 소재로 환경을 생각한 것은 물론, 포장 및 배달 과정에서 음식이 식는 것을 방지해 고객에게 따듯한 음식을 전달한다.

엔제리너스커피는 국내 최초로 플라스틱 빨대를 사용하지 않고도 음료를 바로 마실 수 있는 '드링킹 리드'를 도입한다. 앞서 지난 5월 환경부와 1회용품 줄이기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식을 체결했으며, 이후 빨대 거치대를 제거하고 요청하는 고객에게만 제공할 수 있도록 운영 지침을 내렸다. 이에 엔제리너스는 분리수거가 되지 않아 재활용이 어렵고 분해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차가운 음료를 빨대 없이 마실 수 있는 '드링킹 리드'를 제작했다.이달 13일부터 순차적으로 전국에 있는 매장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편의점도 친환경 소재를 사용한 도시락 용기를 도입하고 있다. 편의점 CU(씨유)는 친환경 플라스틱 소재로 만든 도시락 용기를 도입했다. CU '친환경 도시락' 용기는 코코넛 껍질을 활용한 바이오매스 소재를 적용해 플라스틱 사용량을 약 40% 감축할 수 있으며, 자연분해도 용이해 환경 친화적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BGF리테일 측은 용기의 단가는 기존 용기에 비해 약 2~30% 높지만, 최근 범국가적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환경 보호를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도입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BGF리테일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까지 전체 도시락 용기를 친환경 용기로 전면 교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븐일레븐은 일회용 얼음컵을 재활용 할 수 있는 완전 투명한 무지 형태로 바꾼다. 기존 얼음컵 표면에 표시했던 브랜드 로고, 바코드 등을 과감히 없앤다. 이르면 8월 중 전국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PB 생수 '옹달샘물' 뚜껑을 기존 녹색에서 무색으로 변경해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며 친환경 소재 일회용 비닐봉투 도입, 휴대용 장바구니 도입, 도시락 뚜껑의 친환경 소재(PET→PP) 변경 등을 추진한다.

업계 관계자는 "식품업계가 환경 보호를 위해 불필요한 일회용품 사용을 최소화하고 에코 패키지 제품을 연달아 선보이는 등 고객의 가치 소비에 발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박인웅기자
parkiu7854@metroseou

오피스텔 분양불패 공식은 '배후단지'

청약 마감 9곳 대기업·산업단지 배후

오피스텔 분양 성공 여부는 산업단지 등 배후수요에 달렸다. 이런 분양 불패 공식은 올 상반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올해 상반기 전국에서 분양한 오피스텔 40곳 중 1순위 청약 마감한 9곳이 모두 대기업이나 산업단지를 배후단지로 두고 있다.

실례로 청약경쟁률 1위인 '힐스테이트 범계역 모비우스(105대 1)의 경우 안양 벤처밸리의 연구시설인 평촌 스마트스퀘어와 안양국제유통단지, 안양IT단지와도 가깝다.

오피스텔 주변에 대기업이나 산업단지를 끼고 있을 경우 성공 확률이 높다. 특히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가 많고, 임차인을 구하기 쉬워 안정적인 임대수익을 기대할 수 있어서다. 매매가격 상승 및 환금성도 뛰어난 편이다. 임대수익율도 높다.

서울의 대표적인 첨단 산업밸리로 주목받고 있는 가산디지털단지와 인접한 가산동의 '램킨 푸르지오시티'의 임대수익률은 5.33%(전용 21㎡) 로 서울(4.72%), 금천구(4.80%)를 웃돈다. 삼성전자나노시티(화성, 기흥캠퍼스)와 두산중공업, 한국3M기술연구소 등이 위치하고 있는 동탄 일반산업단지가 인접한 경기 화성시 능동 '동탄퍼스트빌스타'의 임대수익률은 화성시 평균 임대수익률을 웃돈다.

이같은 입지에 분양 대기중인 오피스텔로 이달 평택 고덕국제화도시 첨단산업단지 내 삼성전자 반도체공장 동문(東門)과 인접한 '평택 고덕아이파크' 21~35㎡, 1200실은 고덕국제화도시 첨단산업단지외에도 인근에 고덕신도시, 평택일반산업단지를 비롯해 쌍용자동차공장, 송탄산업단지, 장당산업단지, 칠괴산업단지, 평택종합물류단지 등 많은 산업단지가 주변에 몰려 있다.

이달 경기 파주시 야당동 1056번지 일대에 분양하는 진산건설의 '야당역 이더펠리체' 19~21㎡ 237실의 경우 월롱첨단산업단지, LCD일반산업단지, 출판문화정보 국가산업단지 등 10여개의 산업단지가 밀집해 있다.

11월 경기 성남고등지구 C1,2,3블록의 '성남 고등 자이' 아파트 383가구와 오피스텔 151실은 서울 강남과 판교는 물론 송파 문정지구, 고등지구 남측에 위치한 판교테크노밸리와 제2판교테크노밸리(예정), 제3판교테크노밸리(예정)가 인접해 있다.

/이규성 기자 peace@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중앙회
삼성전자

中企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맞손'

각 100억 지원해 500개 공장 구축
150명 규모 삼성전자 멘토단 투입

중소기업중앙회, 중소벤처기업부, 삼성전자가 중소기업들의 스마트공장 구축을 위해 손을 잡았다.

중기중앙회는 중기부와 삼성전자가 각각 100억원을 지원해 500개 기업의 스마트공장 구축을 돕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특히 향후 5년간 총 1000억원 규모의 지원을 통해 약 2500개의 스마트공장을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지원 내용 및 지원 규모는 ▲중간 1 수준 이상 구축을 목표하는 기업 50곳에 최대 1억원 ▲기초 수준 이상 구축을 목표하는 기업 150곳에 최대 6000만원 ▲소공인·취약지역 및 업종등 기반구축 300곳에 최대 2000만원 등을 각각 지원한다. 중간1 수준 또는 기초 수준 이상의 스마트공장 구축을 목표하는 기업의 경우엔 비용의 40%만 분담하면 된다. 기반구축을 원하는 소공인 등은 필요한 금액에 대해 100%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모든 수준의 스마트공장 구축 참여기업에는 150명 규모의 현직 삼성전자 제조현장혁신활동 멘토단이 투입돼 도움을 줄 예정이다.

중기중앙회 스마트공장확산추진단 양찬회 실장은 "제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제조업 부흥의 시작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bada@

DJ 뒷조사 관여 혐의 이현동, 1심서 '무죄'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과 손 잡고 김대중 전 대통령을 뒷조사하는 비밀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현동 전 국세청장이 8일 오후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밖으로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과 김대중 전 대통령 뒷조사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현동(62) 전 국세청장이 8일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국고손실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전 청장의 선고 공판에서 "범죄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청장은 국세청 차장과 청장을 지낸 2010년 5월~2012년 3월 국정원과 함께 김 전 대통령의 해외 비자금 의혹을 뒷조사하는 비밀공작 '데이비드슨 사업'에 관여해 대북공작에 써야 할 자금 5억3500만원과 5만 달러를 낭비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1년 9월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의 지시를 받은 김승연 전 대북공작국장에게서 활동자금 명목으로 현금 1억2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원 전 원장과 공모해 국고를 횡령했다고 인정하려면, 원 전 원장의 정치적 의도를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국고에 손실을 입히려 한다는 것을 피고인이 알았다거나 국고손실을 인식할 외부 정황이 있음에도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는 정황이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봤다.

/이범종 기자 joker@